

일관소지一貫素志의 정신, 현재진행형의 출판신화를 찾아가는 길

일지사 김성재 사장(76)이 근무하는 사무실 벽에는 '一貫素志'라고 쓰인 편액이 걸려 있다. 당대의 명필 검여劍如 류희강 선생이 써준 이 글은 뜻을 끝까지 지켜 이어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자구만큼 김성재 사장이 걸어온 길을 잘 대변하는 글은 달리 없을 듯 보인다.

김성재 사장은 1950년대 출판시장에서 크게 히트한 '간추린' 학습서 시리즈(대양출판사)의 기획자이다. 당시 누구도 쓰지 않던(김 사장의 기억에 의하면 간추린은 당시 경상도 지역에서 만 쓰던 사투리였다) 말인 '간추린'이라는 형용사를 시리즈의 타이틀로 적용한 김성재 사장의 아이디어는 탁월함 그 자체였다. 그는 이후 일지사를 설립, 학술출판 외길을 47년 동안이나 꺾

하게 걸어왔다. 반세기가 가까운 세월이다. 김성재 사장의 집무실 한편에는 그동안 일지사의 이름을 달고 나온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이 책들은 일지사의 47년 출판 성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압도적인 풍경을 이룬다. 놀라운 것은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김성재 사장이 여전히 '현역 출판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책상 위에는 주판과 교정지가 놓여 있고 바로 옆에는 교정쇄가 놓여 있다. 그는 아직도 출판사 살림의 대부분을 직접 챙긴다.

"일이 좋아서 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교정을 직접 보고 있거든요. 매일 정확히 아홉 시 십 분에 출근해서 여섯 시 십 분에 퇴근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가만있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1956년 김성재 사장이 설립한 일지사는 학술·문학·인문사회·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500여 종 넘게 출간했다. 일지사의 도서목록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와 형들이 읽었을 만한 책들이 많다. 일지사의 책들은 그대로 한국출판의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권 한 권이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출판을 맡겼던 <한국학보>는 현재까지 지령 110호를 기록하며 한국학의 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지사는 최근 27년간 자리를 지켰던 서울 중학동 사옥을 떠나 신문로2가로 이전을 했다. 중학동 사옥이 1975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설계를 해서 지었던 건물인지라 김성재 사장은 아쉬움이 많다고 말한다. 새로 이주해 들어간 사옥의 리모델링 설계 역시 김성재 사장이 직접 했다. 사장실이 있는 곳은 3층. 칠순 노구인 그는 이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 일에 대한 열정이 아니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출판계에서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출판인으로 꼽힌다.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젊은이 못지않게 공부한다. 그의 저서에는 저작권이나 전자책, 디지털 출판 등에 대한 해박한 식견이 표명되어 있다. 이처럼 늘 공부하는 자세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의 저서 《출판의 이론과 실제》는 최근 7쇄를 찍었다. 이 책은 출판관련 교재로서 중요한 텍스트로 평가받는다. 그는 출판관련 법규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재판을 찍을 때 반드시 수정한다. 최근에 발효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내용도 7쇄판에 포함됐다.

“출판인들, 특히 편집자들은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편집은 단순한 교정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일이거든. 늘 의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의심해야 하죠.”

백발의 김성재 사장이 출판에 입문한 것은 스물두 살 되던 1949년의 일이다. 당시 그는 고 김익달 사장(<주부생활>·학원사 설립자)이 운영하던 대양출판사에 입사해 출판 일을 배우게 된

다. 이후 신문사 등에서 7년간 편집 실무를 경험한 뒤 1956년 출판사를 직접 설립한다. ‘일지사 반세기’의 시작이다. 일지사 브랜드의 속뜻은 이렇다.

“일지사는 말 그대로 한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이름을 우리말로 한뜻출판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글전용이 드물었어요. 주위에서 반대가 심해질 수 없이 뜻은 살리면서 한 일—자에 뜻 지志자를 써서 일지사라고 한 것이죠.”

의욕과 열정은 넘쳤지만 젊은 사장의 출판사 운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시절, 김성재 사장은 1할의 높은 이율을 감내하고 빚을 내 책을 출판한다. 책은 제법 팔려나갔지만 수금을 해 들어온 돈으로는 이자를 갚기도 빠듯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고 고전하다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학습서나 사전 등이 본격적으로 팔리게 되면서 일지사는 출판사로서 안정적인 기반에 올라선다. 김성재 사장은 경영상의 부침을 겪었을지언정 지금까지 출판인으로서 자긍심을 버린 적은 없다. 상업출판, 대중출판의 유혹에 한번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그것을 ‘품위’라는 말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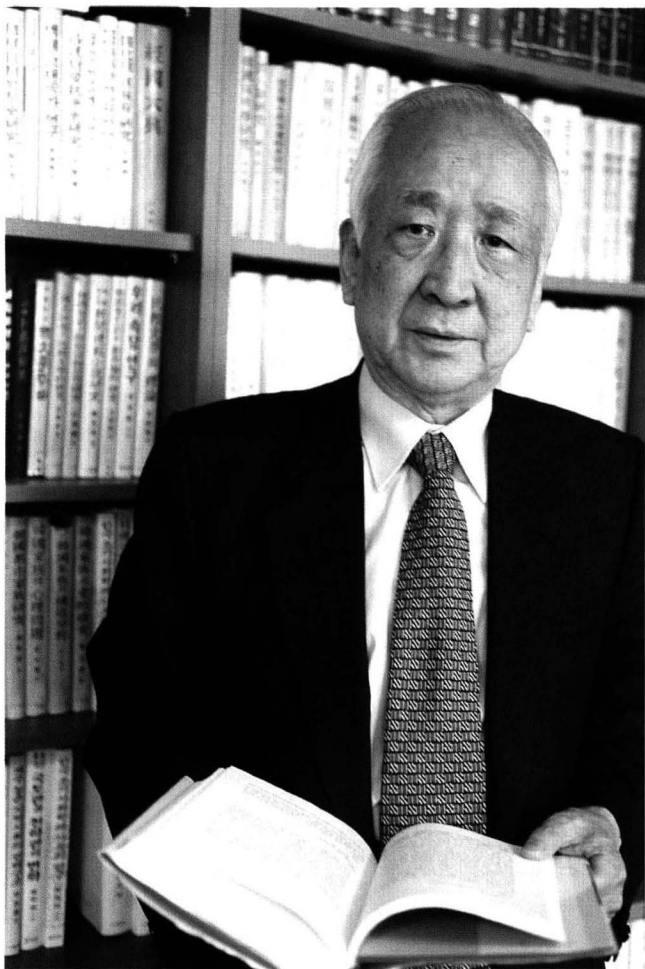
“나는 지금까지 출판 일을 하는데 품위를 지켜왔어요. 후배들도 품위를 지켜가면서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이나 편집 유통에 있어서 샷되지 않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해요.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자사 책을 사들이는 행위나 로비를 벌이는 행위는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일지사의 책들은 세련미는 덜하지만 한 쪽 한 쪽마다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오자와 탈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편집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소양 중에서 교정과 교열 능력을 유달리 강조한다.

“교정이라는 것은 편집 과정상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국어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만 보는 게 아니고 문장의 호흡이나 전체적인 어감 등도 봐야 해요. 그리고 외래어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죠. 나는 처음 출판계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국어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편집에 임

해 왔어요.”

김성재 사장은 레저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오락 영상 산업 등에 문화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출판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선불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대신 차분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성급하게 진단하고 눈앞의 굴신에만 집착하는 후배들을 던지시 나무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저는 출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상황이 바뀐 것은 인정하지만, 출판은 살아남을 거예요. 출판은 모든 문화의 근원이에요. 근원이 허물어지면 문화 자체가 실종되고 말아요. 먼저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도서관도 확충해야 하고 도서관의 여러 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



리 문화의 토대가 튼튼해지죠. 우리나라 정부의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서도 육성하고 증원해야 합니다. 도서관이 제대로 관리, 운영되면 출판산업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돼요.”

김성재 사장은 지금까지의 한국 출판이 ‘영업주도형의 출판’이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영업주도형의 출판이 그 시대상황에서 분명한 역할을 담당하긴 했지만 이제는 편집주도형의 출판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학과 소신이 있는 편집에 의해서 출판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기능을 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영업주도형의 출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외국에서는 편집자가 대접을 받는데 우리 출판현실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 데는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해 온 편집자들의 책임이 큼니다. 깨어 있는 편집자들에 의해 사회에 기여하는 양질의 책이 꾸준히 출판되어야 합니다. 출판인으로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해요. 물론 오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출판도 존재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출판은 국내필자를 개발하는 데 지금보다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지사 47년의 역사 중 가장 영예로웠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묻자 김성재 사장은 매출이 가장 많았던 해도 아니고 그가 상을 받았던 해도 아닌 1975년을 꼽는다. 그는 이 해가 양질의 책을 가장 많이 출간했던 해라면서 그 해에 출간됐던 도서목록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박용구의 《음악의 광장》, 지명렬의 《독일낭만주의 연구》, 조연현의 《한국현대소설의 이해》, 송면의 《프랑스 문학사》, 서정주 시집 《질마재 신화》 등 주옥 같은 명저들이 눈에 띈다.

그는 편집자·출판인이라면 출판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늘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관소지의 열정과 소신으로 그는 55년 현재진행형의 출판인생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